

딱지본 작가의 필명 연구 — ‘월파(月坡)’와 ‘이소(二笑)’를 중심으로 —

김 영 애*

요 약

본고는 ‘월파(月坡)’라는 필명을 사용한 소설가 김상용과, 비슷한 시기 ‘이소(二笑)’라는 필명으로 딱지본 대중소설 및 번역번안소설을 다수 창작한 작가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두 작가가 모두 김상용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딱지본 소설의 문학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가 양적, 질적 수준에서 확장되어가는 반면 딱지본 작가의 정체성이나 필명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딱지본 작가의 필명에 초점을 맞추어 1920, 1930년대 집중적으로 발표된 딱지본 소설 작가 가운데 월파와 이소라는 필명에 주목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본고는 새롭게 발굴된 김상용의 딱지본 소설에 대한 분석과 의미화를 병행하여 소설가 김상용의 문학사적 위상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본고는 식민지시기, 딱지본 소설이라는 특정 시기와 장르에서 두 필명의 작가가 발표한 작품들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양자의 강한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신파소설, 딱지본 소설에 관한 당대의 사회 문화적 인식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기에 자신의 정체를 필명 뒤로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복수의 필명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한다. 본고는 ‘월파’와 ‘이소’라는 두 개의 필명이 몇 개의 직·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하여 김상용으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 청주대 국어교육과 객원교수



주제어: 김상용, 월파, 이소, 딱지본 소설, 식민지시기, 필명

목차

1.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제기
2. 딱지본 작가 '월파'와 '이소'의 관련성
 - 1) 정황의 개연성
 - 2) '小叙'의 형식
3. 필명 연구를 통해 본 소설가 김상용의 위상

1.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제기

시인이자 영문학자 김상용(1902-1951)이 '월파(月坡)'라는 필명으로 식민지시기 다수의 신파소설 혹은 딱지본소설을 창작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이다. 본고는 '월파(月坡)'라는 필명을 사용한 김상용과, 비슷한 시기 '이소(二笑)'라는 필명으로 딱지본 대중소설 및 번역번안소설을 다수 창작 발표한 작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소설가 김상용의 문학사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김상용이 발표한 작품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소'라는 필명을 사용한 동시대 작가와 김상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들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사실이 없으나, '월파'와 '이소'라는 두 개의 필명이 비슷한 시기, 특정 작품에서 중복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월파 김상용 소설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이소라는 필명 사용자에 대한 연구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소설가 김상용에 관한 연구로 이문구¹⁾, 송백현²⁾의 논문이 있고 월파(月坡)라는 필명을 사용한 작가가 김상용임을 논증한 것으로

이우용³⁾, 강옥희⁴⁾, 조경덕⁵⁾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문구는 소설 『화랑』(발행소 및 발행연도 미상)을 분석한 글에서 이 작품의 저자가 ‘金月坡’로 표기된 점, 작품 본문 한글 표기 방식이 1920-30년대 김상용이 가장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했던 시기와 같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작품이 김상용의 것이라 했다. 또한 그는 김상용이 1926년 ‘月坡生’이라는 필명으로 『永遠의 사랑』이라는 번역소설집을 영창서관과 한흥서림에서 출간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문구는 ‘월파’라는 필명이 김상용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가 본격적인 시 창작활동 이전에 소설 창작을 시작했다고 보았다. 송백헌은 이문구의 논의를 계승해 『화랑』이 김상용의 작품으로, 1957년 대동사에서 출간된 『無窮花』와 내용 및 판형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우용과 강옥희는 그의 필명을 별다른 근거 없이 ‘월파’로 지칭했다. 이는 이문구 등이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조경덕은 “김상용의 막역지우(莫逆之友)이자 이화여전 동료 교수였던 이희승에 따르면 김상용은 호를 ‘월파(月坡)’라 일컬었으며, 때로는 ‘월파(月波)’로도 행세하였다”고 밝혔다. 조경덕은 김상용이 발

- 1) 이문구, 「金月坡의 소설 『花浪』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회, 1989, 269-282면 참조.
- 2) 송백헌, 「新派性小說 “無窮花” 研究」, 『語文研究』 20,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90, 3면.
- 3) 이우용, 「월파(月坡) 김상용의 문학적 배경 연구」, 『겨레어문학』 13,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89, 157-171면 참조.
- 4) 강옥희,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성과 전개」, 『대중서사연구』 15, 대중서사학회, 2006, 21, 31면.
- 5) 조경덕, 「월파 김상용의 소설 창작 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205-226면 참조. 이 논문에 따르면 김상용은 식민지 말기 「영혼의 정화」(『매일신보』, 1942.1.27), 「성업의 기초」(『매일신보』, 1942.2.19),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매일신보』, 1943.8.4) 등 학병 출전을 권유하는 시와 산문을 기고해 ‘친일 문인’으로 기록되기도 했다고 한다.

표한 소설 작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소설가 김상용의 새로운 위상에 대해 논구한 바 있다. 조경덕의 논의는 소설가 김상용이 지닌 다양하고 새로운 면모를 매우 정교하게 보여주었으며, 구체적인 목록과 해제를 통해 개별 작품들의 주제의식을 면밀하게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문구와 송백현이 분석한 『화랑』, 『무궁화』가 실은 1934년 박문서관에서 간행된 『청춘의 화몽』과 같은 내용, 판형의 작품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또한 그는 김상용이 다수의 신파소설을 창작한 배경에 대해 “본격적인 작품 창작에 대한 연습과 학비 조달”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또 조연현이 “신문 학사상에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진 유명작가가 ‘신파소설’을 써서 팔아 온 많은 예를 알고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김상용이 딱지본소설을 창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⁶⁾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상용은 시인으로 문명을 얻었으나 실은 소설로 먼저 등단했다. 그의 처녀작은 그가 1926년 10월 5일 『동아일보』에 발표한 시 「일어나거라」로 알려져 있으나, 김상용은 그에 앞서 소설을 먼저 발표했다. 1920년 11월 『학생계』 4호에는 김상용의 소설 「杜鵑聲」이 ‘選外佳作’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과, 이 작품에 대한 오천석의 단평이 수록되어 있다.⁷⁾ 오천석은 이 소설에 대해 “小説의 最貴한 意味 다시 말하면 思想을 차출 수가 없”으며 “無用한 對話가 數百을 占領하고 其他 自然描寫가 그리어 잇스되 다 죽은 것이 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작품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오천석의 평가로 짐작하건대 「두견성」의 문학적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 이후 김상용은 본격적으로 딱지본소설 창작에

6) 조경덕, 앞의 글, 209-221면.

7) 김상용은 1902년 경기도 연천에서 출생하여 1917년 경성제일고보에 입학하였으나 재학 중 3.1운동에 가담한 이유로 제적을 당하자 이후 보성고보로 전학하여 1921년에 졸업했다. 따라서 그가 「두견성」을 발표한 시기는 보성고보 재학 시절임을 알 수 있다.

몰입했다. 1925년 『동정의 루』, 『청춘의 루』, 『춘광월』 등을 출간했고, 1926년 『영원의 사랑』, 『오호천명』 등을 발표하여 대중 신파 소설계의 주요 작가로 부상했다. 어떤 이유에서건 김상용이 꽤 오랫동안 소설을 창작 발표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김상용이 소설을 창작한 사실을 독자들이 쉽게 수용하지 못할 따름이다. 따라서 김상용의 소설에 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조경덕의 논의를 대부분 수용하되 이를 확장하여 그가 다루지 않은 작품, 그의 필명과 관련된 문제 등을 중심으로 김상용 소설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조경덕의 논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戀無情』의 저자를 ‘월파’로 표기한 대목이다.⁸⁾ 송하춘 편 『한국근대소설사전1890-1917』에 따르면 『연무정』은 ‘월파’가 아니라 ‘이소(二笑)’의 작품으로 1929년 창문당서점에서 초판이, 1931년 영창서관에서 재판이 나온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⁹⁾, 최근 발굴 소개된 『연무정』 해제에는 이 판본이 간기 유실로 인해 발행소와 발행연도를 알 수 없으나 저자는 ‘이소(二笑)’라 되어 있다.¹⁰⁾ 지금까지 ‘이소(二笑)’라는 필명을 사용한 작가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경덕이 『연무정』의 저자를 월파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연무정』의 저자는 월파와 이소 중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은 본문에서 다룰 『청춘의 설움』, 『무정한 설움』, 『암투』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고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발견한 몇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1920년대 중후반 김상용의 발굴 딱지본 소설의 특징 및 ‘월파’와 ‘이소’의 관련성을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8) 조경덕, 앞의 글, 210면.

9) 송하춘 편, 『한국근대소설사전1890-1917』, 고려대출판부, 2015, 371면.

10) 김영애, 『발굴 딱지본 소설 해제1』, 『근대서지』 16, 근대서지학회, 2018, 125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설정한 본고의 가설은 ‘월파’와 ‘이소’가 ‘김상용’을 매개로 하여 매우 높은 상관성을 지니며, 더 나아가 두 작가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발굴 작품 『청춘의 설움』과 『연무정』, 『암투』, 『무정한 설움』 등에 관한 해제와 분석을 참고하여 본고는 두 가지 필명을 사용한 작가가 모두 김상용과 관련된 인물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된다면 김상용 소설에 관한 연구의 영역이 좀 더 확장될 것이며, 식민지시기 딱지본 소설의 창작 및 유통에 관한 실증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2. 딱지본 작가 ‘월파’와 ‘이소’의 관련성

1) 정황의 개연성

한기형은 1910년대 조선에서 신소설이 ‘공장 소설’의 형태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¹¹⁾ 딱지본 소설이 생산되는 과정이 기존 소설의 내용을 수정 요약하고 표절하는 등의 혼성 모방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민간출판사의 기획 아래 기존 소설을 재료 삼아 이를 분해하고 새롭게 조립하는 방식으로 딱지본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해 새로운 재화를 대량 생산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메커니즘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¹²⁾ 양건식은 딱지본 소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작가가 받은 돈이 “一券 小説에 多則十餘圓 小則五六圓” 정도라고 했고¹³⁾, 김동인은 십원에서 삼십 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11) 한기형, 「1910년대 신소설에 미친 출판 유통 환경의 영향」, 『한국학보』 22, 일지사, 1996, 140-141면.

12) 권철호,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2, 27-29면.

했다.¹⁴⁾ 상대적으로 적은 원고료가 책정된 배경에는 이 시기 딱지본 소설 상당수가 창작이 아닌 제작의 방식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딱지본 소설의 서사가 대체로 일정한 스테레오타입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는 근거 또한 이러한 공장 소설 방식의 생산 및 혼성 모방을 통한 창작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작 방식은 월파의 소설 혹은 그와의 연관성이 언급된 작품군에서도 발견된다. 월파 소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창작 혹은 제작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의 작품 중 다수의 표제와 서사가 대동소이하다는 점, 작품 발표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연애와 관련된 비극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그가 소설 창작보다는 제작에 가까운 방식을 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그의 작품 중 『청춘의 설움』, 『무정한 설움』, 『연무정』 등을 통해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월파’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작품으로만 한정해 보더라도, 1923년부터 1934년경까지 15편의 딱지본 소설이 출간되었고, 이중 1930년 이전에 출간된 작품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순수한 창작의 방식만으로 많은 작품을 단기간에 출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월파가 특정 시기 몇 년간 딱지본 소설의 창작과 제작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딱지본 소설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발표하는 데 따른 부담이 여러 개의 필명을 사용한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김상용은 1921년 보성고보를 졸업한 후 1922년 일본 릿쿄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여 1927년에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파’ 혹은 다른 필명으로 다수의 딱지본 소설을 집중적으로 출간한 시기에 김상용은 일본 유학 중이었다. 그는 유학생할 중 딱지본 소설뿐만 아니라 시

13) 양건식, 『춘원의 소설을 환영하노라(하)』, 『매일신보』, 1916.12.29.

14) 김동인, 『조선의 소위 판권문제』, 『신천지』, 1948.1.

『일어나거라』를 『동아일보』에 발표하기도 했다. 유학 중에 딱지본 소설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배경에 관해서는 노천명의 증언을 참고할 만하다. 노천명은 1956년 김상용 평전을 쓰면서 “先生은 어느 편이나 하면 苦生과 수고로 뭉쳐진 분이 아니었던가 한다. 우리 文壇의 女流時調大家로 이미 定評이 있는 그 妹氏 金午南女史와 早失父母하고 공부들을 하시느라고 겪은 苦生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先生은 東京에서 苦學을 하시면서 그 돈으로 또 妹氏 金午男氏를 東京女子大學 英文科를 卒業시키셨던 것이니 先生의 얼굴엔 남다른 世苦의 흔적이 어딘가 보이셨다.”¹⁵⁾ 노천명이 쓴 글에 따르면 ‘전원적인 낭만주의 시인 월파’ 김상용이 일본 유학 중 소설을 써서 자신과 여동생 김오남의 학비를 낸 정황을 알 수 있다. 즉 김상용은 소설가로서 문명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딱지본 소설을 대량 생산했으며, 이러한 정황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명이 아닌 필명을 여럿 사용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월파’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소설은 모두 15편이다. 송하춘 편 『한국근대소설사전』에 소개된 월파의 작품은 『눈물에 지는 꽃』(발행소불명 1936), 『同情의 淚』(영창서관·한홍서림·삼광서림 1925), 『無情한 설움』(시창서관 1927), 『戀愛의 苦鬪』(영창서관 1932), 『永遠의 사랑』(영창서관 한홍서림 1926, 번역소설), 『嗚呼天命』(영창서관 1926), 『人情의 淚』(영창서관 1934), 『青春의 淚』(영창서관 1925), 『青春의 恨』(영창서관·한홍서림·진홍서관 1932), 『青春의 花夢』(박문서관 1934), 『春光月』(신구서림 1925), 『표랑의 눈물』(영창서관 1933), 『虛榮의 눈물』(성문당서점 1934) 등 13편이며, 여기에는 1929년 작 『청춘의 설움』이 누락되었다. 이 목록을 통해 월파 김상용이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딱지본 소설 창작과 번역 작업에 주력

15) 노천명, 『金尙鎔 評傳-田園의인 浪漫主義 詩人 月波』, 『自由文學』, 1956. 7.

했음을 알 수 있다.¹⁶⁾

〈표1〉 율파 소설 목록

작품명	출판사	출판년도	기타
동정의 루	영창서관 한홍서림 삼광서림	1925	
춘광월	신구서림	1925	
청춘의 루	영창서관	1925	
영원의 사랑	영창서관 한홍서림	1926	번역
오호천명	영창서관	1926	
무정한 설움	시창서관	1927	
청춘의 설움	영창서관	1929	
연애의 고투	영창서관	1932 ¹⁷⁾	
청춘의 한	영창서관 한홍서림 진홍서관	1932	
표랑의 눈물	영창서관	1933	작품집
청춘의 화몽	박문서관	1934	
허영의 눈물	성문당서점	1934	
인정의 루	영창서관	1934	
눈물에 지는 꽃	불명	1936	
목단봉 ¹⁸⁾	불명	불명	

16) 김상용이 영문학자라는 사실, 그가 110여 편 중 38편의 번역서를 발표한 이력, 외국문학을 소개하는 평론을 다수 발표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그가 번역번안소설을 발표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17) 『연애의 고투』의 최초 출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작품이 1924년 2월 〈동아일보〉 광고에 수록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932년이 아니라 적어도 1924년 2월 이전이므로 이 작품은 1920년대 작품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이 작품의 초판은 영창서관이 아니라 신명서림이다. 그러나 신명서림에서 출간되었으리라 짐작되는 초판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18) 『목단봉』은 조경덕의 논문에서 확인된 작품으로, 『눈물에 지는 꽃』과 이명동본작이다. 조경덕, 앞의 글, 211면.

한편 '이소'라는 필명을 사용한 작가가 발표한 작품은 모두 11편으로 확인된다. 송하준의 책에는 『白髮鬼』(영창서관 1924 번역), 『暗鬪』(영창서관 1925 번역), 『戀無情』(1929 창문당서점), 『貞婦의 淚』(영창서관 1925), 『戀無情』(창문당서점 1929), 『疑問의 사랑』(영창서관 1931), 『片手美人』(영창서관 1931), 『青春의 설움』(영창서관 1933), 『無情한 설움』(영창서관 1935), 『魔窟』(영창서관 1942 번역), 『春怨』(경성서관 1926 번역) 등 10편의 창작소설 및 번역소설이 소개되어 있다. 이소 역시 주로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후반에 집중적으로 작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율파의 창작시기와 겹친다. 이소의 작품 중 지금까지 그 실체를 확인한 것은 『마굴』과 『암투』, 『연무정』 세 편뿐이다. 이 중 『마굴』은 『한국근대소설사전』에 이미 소개되었고, 『연무정』은 2017년 <근대서지>에 최초 소개되었다. 『암투』는 아직 공식적으로 작품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발굴 과정에서 그 실체를 확인한 바 있다.

〈표2〉 이소 소설 목록

작품명	출판사	출판년도	기타
백발귀	영창서관	1924	번역
암투	영창서관	1924	번역
정부의 투	영창서관	1925	
춘원	경성서관	1926	번역
연무정	창문당서점	1929	
의문의 사랑	영창서관	1931	
편수미인	영창서관	1931	번역
청춘의 설움	영창서관	1933	
무정한 설움	영창서관	1935	
마굴	영창서관	1942	번역

두 작가의 소설 목록 중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청춘의 설움』과 『무정한 설움』이라는 작품이다. 두 작품은 서지사항의 차이는 있으나 월파와 이소의 목록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을 요한다. 『연무정』 또한 두 작가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는 작품이다. 또 월파의 작품이 대부분 창작소설인데 비해 이소의 작품은 대부분 번역번안소설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창작소설에는 ‘월파’라는 필명을, 번역번안소설에는 ‘이소’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김상용이 저자로서의 정체성을 구분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국근대소설사전』에는 저자가 중복된 것들 중 일부 작품만이 확인되었을 뿐, 나머지는 당시 발행된 도서 광고 목록에 의지해 서지사항만 추정하여 소개되었다. 이후 발굴을 통해 실제 작품이 추가로 확인된 것은 월파 작 『청춘의 설움』과 이소 작 『연무정』 뿐이다. 월파 작 『연무정』, 이소 작 『청춘의 설움』과 『무정한 설움』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청춘의 설움』의 실체는 지금까지 정확히 확인된 적이 없다. 다만 송하춘의 『한국근대소설사전』에 소개된 작품 목록을 통해 이 작품의 존재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행본 원본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작품의 경계 및 세부 서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청춘의 한(영창서관·한홍서림·진흥서관 1933)』 권말 ‘영창서관발행서적목록’에 ‘청춘의 설움’이라고 제목이 표기되어 있다. 영창서관에서 펴낸 『신간도서목록』에 ‘二笑 作 戀愛悲劇 青春의설움’이라고 표기되어 있다.”¹⁹⁾ 그러나 최근 발굴 작업을 통해 이 작품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 판본은 ‘월파’의 저작으로 소화 4년(1929) 12월 30일 영창서관에서 초판이 발행되었다. 저작 겸 발행자는 강의영, 인쇄지는 신태삼으로 표기되어 있다. 부제 ‘戀愛悲劇’, 표지 제목은 ‘青春의 설움’이며, 본문 첫 장에 ‘月坡 作’으로

19) 송하춘, 앞의 책, 526면.

저자명이 표기되어 있다.²⁰⁾ 송하춘의 『한국근대소설사전』에서 제시한 저자와 실제 저자의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자는 ‘이소’를, 후자는 ‘월파’를 저자로 제시하고 있다.

『연무정』의 최근 발굴 판본에 대한 해제²¹⁾에는 “간기가 없어 정확한 발행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나, 송하춘 편 『한국근대소설사전』에 의하면 1929년 창문당서점에서 초판이 출간되었고 1931년 영창서관에서 재출간되었다. 저자는 이소(二笑), 본문 190면, 전체 95개의 소절로 구성되었다.”라는 설명이 등장한다. 『한국근대소설사전』에는 이 작품에 대해 “단행본 원본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작품의 경계 및 세부 서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소 역으로 알려진 『춘원』(경성서관 1926)과 동일본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 자료로 확인한 『연무정』 표지에 ‘戀無情’, 본문 첫 장에 ‘戀無情 二笑作’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운명의 진주(영창서관1931)』 권말 서적 광고에는 ‘月坡 作 戀無情 一名 春怨’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라고 소개한다. 이러한 설명이, 『연무정』의 저자로 ‘월파’와 ‘이소’가 함께 거론되는 유력한 근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월파와 이소가 창작한 동명의 작품으로 『무정한 설움』이 있다. 월파 작 『무정한 설움』은 『한국근대소설사전』에 서지사항 및 줄거리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작품은 “1927년 시창서관에서 출간되었고, 표지에 ‘청춘환희의 무정한 설움’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동덕여대 도서관 소장 시창서관 본이 유일하게 확인되나 뒤표지와 서지사항이 유실되어 출판시기와 저자를 알 수 없다. 본문 말미에 ‘1927, 丁卯孟夏의 杏村에서 탈고’라고 표기되어 있고, 탈고일자와 장소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한 작가로 ‘月坡’가 있으므로

20) 김영애, 『발굴 딱지본 소설 해제2』, 『근대서지』 17, 근대서지학회, 2018, 137-140면.

21) 김영애, 『발굴 근대 딱지본 소설 해제1』, 앞의 책, 125-127면.

1927년 출판된 김상용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5편의 짧은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이야기의 인물이나 사건은 서로 연관이 없다. 『청춘의 환희(영창서관)』와 동일한 작품으로 추정²²⁾된다. 이 사전에서 저자를 ‘월파’로 추정한 근거는 그의 다른 작품에서 발견된 탈고 시기와 장소 표기 형식의 유사성에 있다. 1927년 시창서관본 『무정한 설움』은 간기가 유실되어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이 작품과 유사하게 탈고 시기와 장소를 표기한 작가가 월파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저자를 월파로 추정한 것이다.²³⁾

이소의 『무정한 설움』에 관해서는 “단행본 원본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작품의 경계 및 세부 서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강명화전(영창서관1935)』 권말 ‘영창서관 발행 신소설 목록’에 ‘무정한설움’이라고 제목이 표기되어 있다. 영창서관에서 펴낸 『신간도서목록』에 ‘二笑 作 戀愛悲劇 無情한설움’이라고 표기되어 있다.”²⁴⁾라는 소개가 전부이다. 이소의 저작은 아직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며, 따라서 월파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정한 설움』과 이소의 작품이 동일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월파의 작품이 1927년 시창서관에서 출간되었고, 이소의 작품은 적어도 1935년 이전 영창서관에서 출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小叙’의 형식

‘월파’와 ‘이소’의 관련성을 넘어 둘을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22) 송하춘, 앞의 책, 175-176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5편의 제목은 ‘유혹의 결실’, ‘연애의 승리’, ‘누구의 죄?’, ‘허무한 죽음’, ‘표랑의 한’ 등이다.

23) 송하춘의 『한국근대소설사전』에 소개된 월파의 저작 중 『무정한 청춘』 역시 저자명 표기가 없으나, 탈고 일자 및 장소 표기의 유사함을 근거로 저자를 월파로 추정했다. 송하춘, 앞의 책, 177면.

24) 송하춘, 앞의 책, 176면.

가장 중요한 근거는 『暗鬪』라는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최근 오영식이 새로 발굴한 작품 목록에 포함되면서 그 실체가 처음 온전히 드러났다. 최근 한 지면에서 이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해제가 실렸다. 그에 따르면, “이 작품의 부제는 ‘探偵悲劇’이며 이소(二笑)가 번역했다. 대정13년(1924) 10월 25일 영창서관과 한흥서림에서 초판이 나왔다. 『암투』는 그간 목록상으로만 존재하여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작품 중 하나이다. 간기에 ‘저작권 소유 저자 겸 발행자 강의영’이라 표기되어 있고, 본문 말미 ‘1924. 2. 15일’이라는 탈고 일자가 명기되었다. 전체 53절 191면이며 정가는 80전이다. 번역자 ‘이소(二笑)’가 누구의 필명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그가 식민지시기 다수의 딱지본 소설과 번역번안소설을 창작 발표한 작가인 점은 분명”하다. 『암투』는 “거액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과 모략이 중심 서사이며, 이 과정에서 유광수라는 신문기자가 탐정 역할을 담당하는 액자소설 형식의 작품”이다.²⁵⁾

월파와 이소의 관련성을 입증할 단서는 작품의 내용이 아니라 서두, 서지사항 표기 방식 등 형식적인 부분에서 발견된다. 『한국근대소설사전』에는 “단행본 원본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작품의 경계 및 세부 서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금남이산(영창서관1925)』 권말 ‘영창서관에서 발행한 서적’ 광고에 ‘戀愛探偵 暗鬪’라고 제목이 표기되어 있다. 영창서관에서 펴낸 『신간도서목록』에 ‘二笑 譯 戀愛探偵 暗鬪’라고 표기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암투』는 1924년 10월 영창서관, 한흥서림에서 초판이 출간되었다. 번역자는 이소(二笑)이며 ‘탐정비극’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이 작품에서 월파의 흔적이 나타나는 대목은 본문 첫 장에 등장

25) 김영애, 『발굴 딱지본 소설 해제3』, 『근대서지』 18, 근대서지학회, 2018, 452-454면.

하는 ‘小叙’이다. 일종의 작가의 말이나 서문이라 볼 수 있는 ‘小叙’라는 형식은 월파의 『무궁화』(연도 미상, 중앙출판사)에도 등장한다. ‘小叙’라는 다소 낯선 형식을 소설에 도입한 경우는 월파의 작품이 거의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소 역 『암투』에 동일한 서문 형식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소와 월파의 강한 친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① 小叙

波瀾만코 曲折만은 이 全篇事實은 참 悲絶慘絶하고 惡極毒極하다 할만하다. 二十年間 靑閨안에 프른 실음 붉은 눈물이 무엇으로 因緣하여 생기었스며 沈沈한 黑幕가운데 灰色疑雲과 검프른 魔手가 무엇으로 基本하여 움작였는가 譯者가 命名한 바 책일흡과 갖치 暗鬪이다 黃金이 萬能의 權威를 가지고 잇는 반면에 또 그와 가튼 害毒을 社會에 流傳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아니 늦길 슈 업다. 拜金宗信者의 한 사람이 되려하는 譯者는 偶然히 이글을 보다가 汲히 늦기는 배 잇서 未熟하나마 한권을 譯述하여 同感諸位에게 紹介하고져 한다.

旺尋客舍에서 譯者 織

② 小叙

이제 이 小編는 社會의 一分者된 家庭에 中心인 夫婦가 結婚할 새에 彼此 心志를 모르고 外貌와 財産과 門閥만 보고 父母의 牽制나 或은 他人의 謀介로 盲目的 結婚을 하였다가 夫婦間 不和로 家庭의 여러 가지 波亂을 演出하여 그 影이 社會에까지 및치고 自身까지 그릇치는 일이 往往함을 生覺한 同時에 家庭上 波亂에 原因이 되고 字典이 될 만한 小說을 紹介하노니 愛讀諸位는 自覺하여 家庭을 暗穴에 誤入치 말고 光明한 樂園을 일우어서 家庭을 健全하게 하여 社會의 有益을 加하며 自己에 幸福을 作할지어다.

一九二六 孟春에 漢陽杏村에서 月波 識

두 작품에 등장하는 小叙의 형식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①은 『암투』의 서두에 등장하는 것이고, ②는 『무궁화』의 도입부이다. 『암투』는 1924년 작, 『무궁화』는 1926년 작이다. 『무궁화』는 1926년에 탈고한 후 1934년 박문서관에서 『청춘의 화몽』으로 개제되었고 이후에도 『무궁화』, 『화랑』, 『사랑하기 때문에』 등으로 개제되어 재출간되었다.²⁶⁾ 본고에서는 ‘월과’와 ‘이소’의 긴밀한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의 하나로 『암투』를 제시한다. 작가의 말이라 할 수 있는 ‘小叙’에서 이 작품의 원작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것이 번역물인 것은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만 조선인 이름과 지명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변안계열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암투』와 『무궁화』의 ‘小叙’는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형식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의 실제 탈고 시기 역시 2년 상간으로 매우 가깝다. 또한 인용문 중 織, ‘識’ 등의 표기는 ‘作’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 시기 월과의 딱지본 소설에서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표기의 다른 용례는 찾기 어렵다.

『암투』의 본문 말미에는 ‘1924. 2. 15’라는 탈고 시기가 표기되어 있다. ‘小叙’에 제공된 정보와 소설 말미에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1924. 2. 15일 旺尋客舍에서 譯者 織과 같은 형식을 완성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식은 ‘월과’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표기법이다. 앞서 살핀 『무궁화』를 포함해 『눈물에 지는 꽃』(昭和十一年 仲夏 慕嶽下에서 脫稿), 『동정의 루』(甲子菊秋에 月巖下에서), 『무정한 설움』(1927, 丁卯孟夏의 杏村에서 탈고), 『오호천명』(丙寅孟春에 杏村에서 脫稿), 『춘광월』(一九二四 月巖下에서 月坡는 畢識) 등의 작품에서도 동일한 표기 방식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小叙’의 형식, 탈고 시기와 장소 표기 방식 등에서 두 작가의 독특한 스타일이 매우 닮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유

26) 『무궁화』에 관한 분석과 논의는 조경덕의 논문을 참고했다.

사성은 둘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발견하기 어렵고 ‘월파’와 ‘이소’의 작품에만 예외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동아일보> 1924년 2월 18, 20, 22일자 3면 하단에 게시된 출판사 광고도 월파와 이소의 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상기 일자 <동아일보>에 게시된 광고는 신명서림과 경성서적의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出版界의 新記錄!! 四大名書出來’
 二笑 創作 高級文藝 愛的 指環
 月坡 創作 高級文藝 愛活模範小說 戀愛的 苦闘
 月坡 創作 悲劇小說 人情的 淚 정가 팔십전

이 기사에서 ‘월파’와 ‘이소’의 창작소설이 나란히 광고에 소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광고에서 월파의 창작소설 『인정의 루』에는 “文壇에 新進 月坡 孫喆秀 先生”이라는 부기가 등장하기도 한다. 저자 월파를 ‘문단 신진 손철수’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손철수’는 김상용의 또 다른 필명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출간된 『인정의 루』(신명서림 1923)에는 ‘손철수’라는 저자명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⁷⁾ 한편 이 광고를 통해 월파와 이소가 비슷한

27) 권철호는 이 광고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딱지본 신소설 작가 ‘월파’가 김상용이 아니라 ‘손철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1924년 2월 8일자 동아일보 수록 신명서림 광고에서 『인정의 루』의 작가를 “文壇에 新進 月坡 孫喆秀 先生”이라 표현한 사실을 근거로 월파를 손철수의 필명으로 간주했다. (권철호, 앞의 논문, 26면) 필자는 1924년 2월 8일자가 아니라 18일자 동아일보 3면 하단 광고에서 신명서림, 경성서적 발행 『인정의 루』, 『연애의 고투』, 『애의 지환』 광고를 확인했다. 『인정의 루』, 『연애의 고투』는 ‘월파’의 창작이고, 『애의 지환』은 ‘이소’의 창작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손철수’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작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문단에서도 이러한 이름을 가진 작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 유사한 성향의 작품을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이소의 『애의 지환』은 어느 목록에도 남아 있지 않고 작품도 확인된 적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작품이 1924년 당시 광고에 수차례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작품이 실제로 출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월파’와 ‘이소’는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창작활동을 했으며, 딱지본 대중소설이나 번역번안소설을 주로 발표했다. 또한 이들은 ‘小叙’의 형식, 탈고 시기와 장소 표기 방식 등에서 매우 유사한 스타일을 드러냈다. 특히 두 사람이 ‘小叙’라는 형식을 예외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序’, ‘序文’ 등의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라 ‘小叙’라는 특이한 형식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유사성은 둘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또한 특정 시기 신문 광고에서 두 사람의 작품이 나란히 등장한다는 사실도 두 작가의 강한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다.

3. 필명 연구를 통해 본 소설가 김상용의 위상

월파 김상용은 시가 아닌 소설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딱지본 소설을 발표한 시기는 1923년부터이며, 1926년부터 시, 수필, 산문 창작을 병행했다. 단순히 작품이 출간된 시기만으로 판단하자면 그는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시와 산문

이러한 주장은 ‘월파’라는 필명을 김상용의 것으로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 근거를 지닌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손철수라는 저자는 김상용의 다른 필명이 아닐까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딱지본 소설을 다수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시는 1939년 문장사에서 출간한 『望郷』으로 묶였고, 기타 산문은 1950년 수도문화사에서 『無何先生放浪記』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그러나 김상용의 소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그에 따라 소설 작품집 혹은 소설 전집은 한 번도 출간된 적이 없다.

본고는 ‘월파(月坡)’라는 필명을 사용한 소설가 김상용과, 비슷한 시기 ‘이소(二笑)’라는 필명으로 딱지본 대중소설 및 번역번안소설을 다수 창작한 작가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두 작가가 모두 김상용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김상용이 발표한 작품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소’라는 필명을 사용한 동시대 작가와 김상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월파’와 ‘이소’라는 상이한 필명이 비슷한 시기, 동일한 작품에서 중복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월파’ 김상용 소설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이소’라는 필명 사용자에 대한 연구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특히 『청춘의 설음』, 『무정한 설음』, 『연무정』 등의 작품이 각각 서지사향의 차이는 있으나 ‘월파’와 ‘이소’의 목록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두 필명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딱지본 소설의 문학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가 양적·질적 수준에서 확장되어가는 반면, 딱지본 작가의 정체성이나 필명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1920, 1930년대 집중적으로 발표된 딱지본 소설 작가 가운데 ‘월파’와 ‘이소’라는 필명에 주목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본고는 새롭게 발굴된 김상용의 딱지본 소설에 대한 분석과 의미화를 병행하여 두 필명이 모두 김상용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이하고자 했다. 다만 본고의 논의는 대부분 정황 증거와 추론을 토대로 개연성에 의지하여 수행되었기에 여러 한계와 오류의 가

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식민지시기, 딱지본 소설이라는 특정 시기와 장르에서 두 필명의 작가가 발표한 작품들의 내용 및 형식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양자의 강한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월파’와 ‘이소’라는 두 개의 필명은 몇 개의 직·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하여 김상용으로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여기에 더해 신파소설, 딱지본 소설에 관한 당대의 사회 문화적 인식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필명 뒤로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복수의 필명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한다. 김상용은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명을 사용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상용의 소설이 지속적으로 발굴·소개되는 상황 하에서 그의 소설가적 위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²⁸⁾ ‘월파’와 ‘이소’는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창작활동을 했으며, 딱지본 대중소설이나 번역번안소설을 주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김상용의 작품으로 간주된 딱지본소설 외에, ‘이소’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작품까지 포함하여 그의 소설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확인한 작품은 ‘월파’의 15편(처녀작 『두견성』을 포함하면 16편), ‘이소’의 11편 등 모두 26편이다. 아직 ‘이소’라는 작가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 미발굴 작품의 수가 여전히 방대하다는 점 등에서 이 숫자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딱지본 소설가 김상용’의 문학사적 위상에 관해서는 ‘시인 김상용’의 그것과 별개로 온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는 딱지본 작가 중 1920년대와 1930년대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월파’와 ‘이소’라는 두 개의 필명이 지닌 상관성을 중심으로 논

28) 최근 <근대서지> 지면을 통해 딱지본 소설 작품의 발굴과 해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김상용의 작품도 다수 추가되고 있다.

의를 진행했고, 두 필명이 모두 김상용의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는 창작 시기의 유사성, ‘小叙’의 형식, 탈고 시기와 장소 표기 방식 등에 있다. 덧붙여 작가의 전기적 이력에서도 딱지본 소설 창작 및 다양한 필명 사용의 직·간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통해 보건대 ‘월파’와 ‘이소’의 밀접한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일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유사성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본고는 두 필명이 모두 김상용과 긴밀히 관련된 것이며, 나아가 김상용이 작가적 자기정체성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다른 필명을 사용한 것이라 보았다.

■ 참고문헌 ■

- 강옥희, 「딱지본 대중소설의 형성과 전개」, 『대중서사연구』 15, 대중서사학회, 2006, 7-52면.
- 권철호,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2.
- 김동인, 「조선의 소위 판권문제」, <신천지>, 1948.1.
- 김영애, 「발굴 딱지본 소설 해제1」, 『근대서지』 16, 근대서지학회, 2017, 125-132면.
- _____, 「발굴 딱지본 소설 해제2」, 『근대서지』 17, 근대서지학회, 2018, 134-143면.
- _____, 「발굴 딱지본 소설 해제3」, 『근대서지』 18, 근대서지학회, 2018, 468-478면.
- 송백현, 「新派性小説 “無窮花” 研究」, 『語文研究』 20,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90, 23-33면.
- 양건식, 「춘원의 소설을 환영하노라(하)」, 『매일신보』, 1916.12.29.
- 이문구, 「金月坡의 小説 『花浪』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회, 1989, 263-288면.
- 이우용, 「월파(月坡) 김상용의 문학적 배경 연구」, 『겨레어문학』 13,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89, 157-177면.
- 조경덕, 「월파 김상용의 소설 창작 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6, 한국근대문학회, 2012, 205-230면.
- 한기형, 「1910년대 신소설에 미친 출판 유통 환경의 영향」, 『한국학보』 22, 일지사, 1996, 119-150면.

<Abstract>

A study on the pen name of six-pence pop novel writer-centering on Wallpa and Yiso

Kim, Young-A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Wallpa and Yiso. They published many six-pence pop novels and translation novels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llpa is known as Kim Sangyong's pen name. However, it was not confirmed whose pen name Yiso belonged to. The study of the identity or pen name of six-pence pop novel writer is relatively lacking.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the pen name of the six-pence pop novelist. The article analyzed Kim's new work, especially 1920-1930's. In addition, the article added an analysis of the work Yiso published. The paper considered Wallpa and Yiso as Kim's pen name. The article also wanted to enhance Kim's reputation as a novelist. This article extracted the commonalities of works published by two writers. The evidence presented here is sadly not conclusive and specific. Because it is the result of deductions based on various circumstantial similarities. But based on the data we've collected so far, they have a very strong connection. It can all converge for Kim Sangyong.

Key words: Kim Sangyong, Wallpa, Yiso, six-pence pop novel, colonial period, pen name



투 고 일 : 2019년 2월 17일 심 사 일 : 2019년 2월 25일-3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9년 3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9년 3월 27일